

**국민을 주인으로
공공기관이 달라집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공공기관이 달라집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차례

공공기관운영법 제정의 의미

1. 공공기관이란? 02

- 국민의 생활과 밀접합니다. 03
-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기관입니다. 03

2. 공공기관의 현재 모습 04

-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04
- 정부의 관리도 체계화되지 못했습니다. 05

3. 공공기관운영법 제정의 의미 06

-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운영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06
- 자율적으로 일하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07

공공기관 이렇게 달라집니다

- 공공기관 운영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10
- 고객인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공기관이 됩니다. 11
- 내부 견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였습니다. 12
-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습니다. 13
-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14
-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15

공공기관운영법 제정의 의미



1

공공기관이란?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과학기술 연구, 산업진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설립하거나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합니다.

전기, 가스, 도로, 주택, 연금 등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에는 한국전력, 토지공사, 도로공사 등 기업경영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과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등과 같이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정부기금을 관리하는 준정부기관 등이 있습니다.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기관입니다.

공공기관 예산은 국가 재정규모와 맞먹고,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국가경제운영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2

공공기관의 현재 모습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 국민들은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제대로 관리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경영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많아 자율적으로 책임있게 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의 관리도 체계화되지 못했습니다.

공공기관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관리의 사각지대도 존재했습니다.

- 그동안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법률이 정부투자기관법, 정부산하기관법, 공기업민영화법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 정부의 감독으로부터 제외된 공공기관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기관 내부 견제장치가 잘 작동되지 않고, 정부의 감독도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감사의 권한이 미약하여 경영진에 대한 견제가 부실했고, 방만경영에 대한 정부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감독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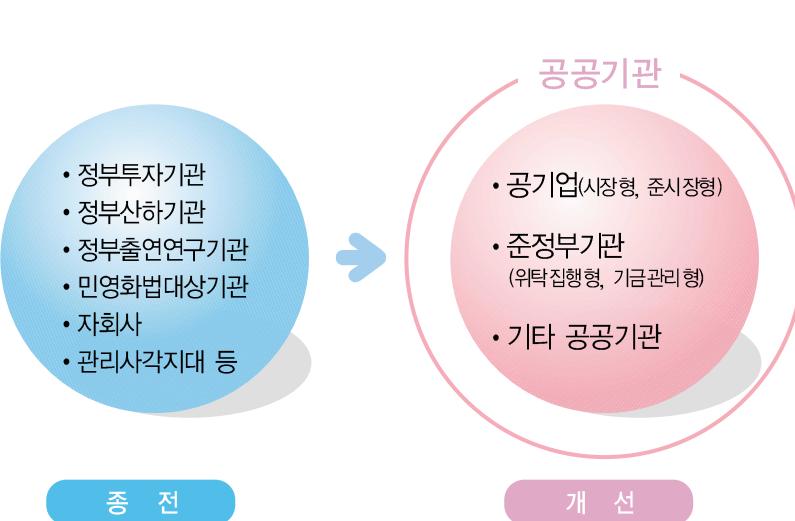
3

공공기관운영법 제정의 의미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운영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전체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국제기준을 참고하여 공공기관의 범위를 설정하고,
기관의 특성에 따라 유형을 새롭게 분류하였습니다.

-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
- 관리대상 확대
- 체계적 유형분류
- 유형별 지배구조 및 관리감독체계 재설계



자율적으로 일하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기관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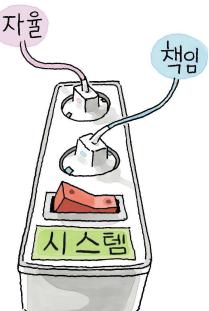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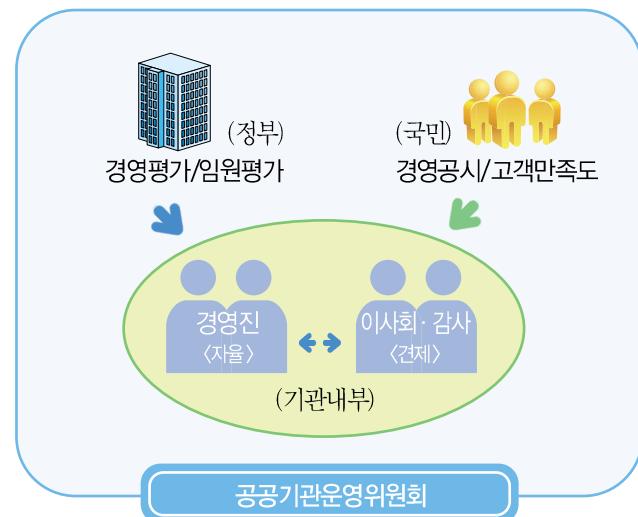
경영진은 자율성을 가지고 일하게 됩니다.
감사/비상임이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내부견제장치가 잘 작동하게 하였습니다.

기관외부

경영정보공개와 정부의 경영평가/임원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감독체계

정부와 민간으로 구성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감독체계를
재설계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공기관 운영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고객인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공기관이 됩니다.

내부 경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였습니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습니다.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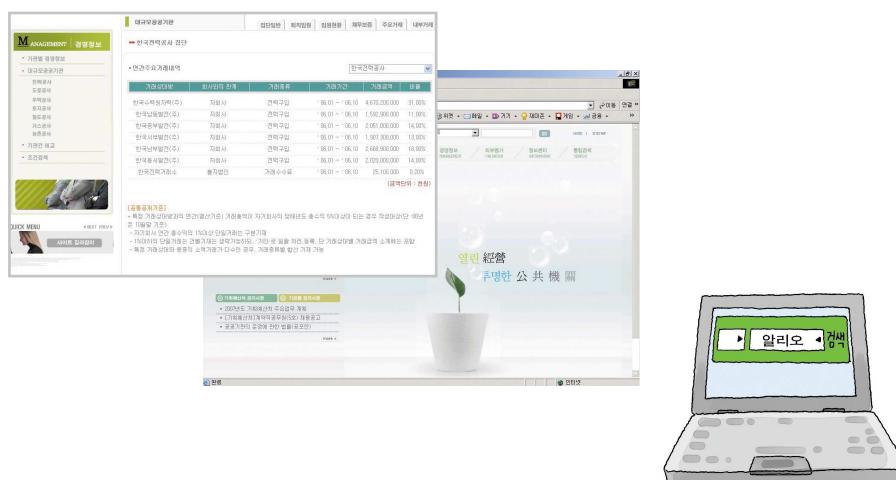
공공기관 운영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경영공사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을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주요 경영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정부는 각 기관의 경영정보를 모아서 공시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리오 시스템(www.alio.go.kr)을 통해
공공기관의 모든 경영정보를 한 눈에 비교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고객인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공기관이 됩니다.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고, 국민에게 직접 평가 받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 고객헌장 제도를 통하여 서비스 내용과 수준을 명시하고, 불만사항과 배상책임 등을 분명히 합니다.
-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내부 견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였습니다.

비상임이사와 감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선임비상임이사 제도 신설 등 이사회를 비상임이사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하였고, 이사회의 자료·감사요구권, 기관장 해임요구권 등도 신설하였습니다.

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평가제를 신설하여 기능 강화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연임·해임 여부를 결정하고, 보수도 차등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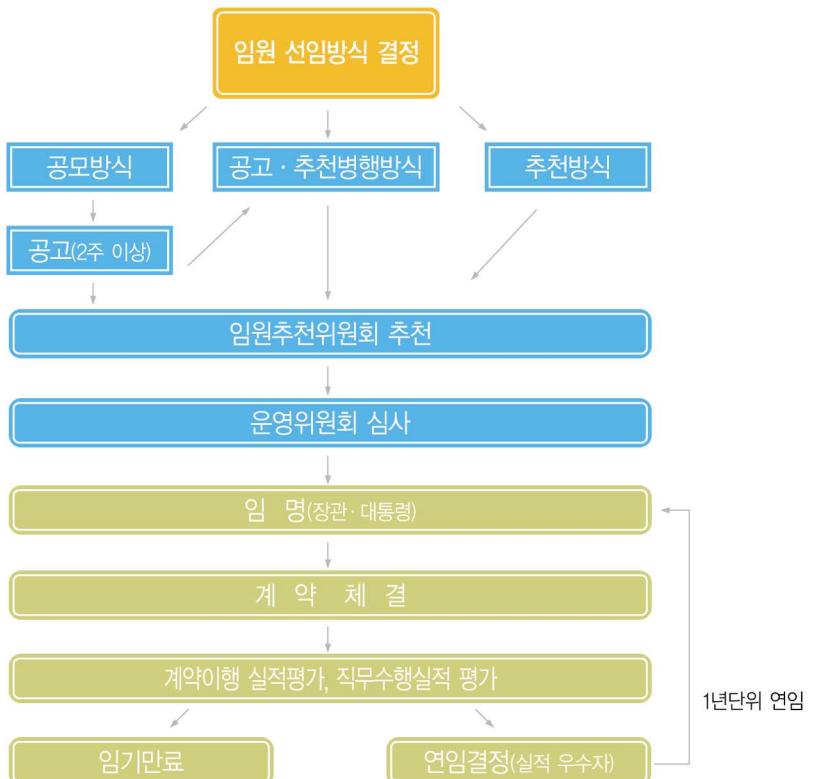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습니다.

임원선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모든 임원에 대해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가 도입되고 임원추천위원회에는 기관구성원 대변자 포함이 의무화 되어 투명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 공기업 사장, 내부 견제임원인 감사·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외부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석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적격성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임원선임절차 흐름도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기관장 중심의 자율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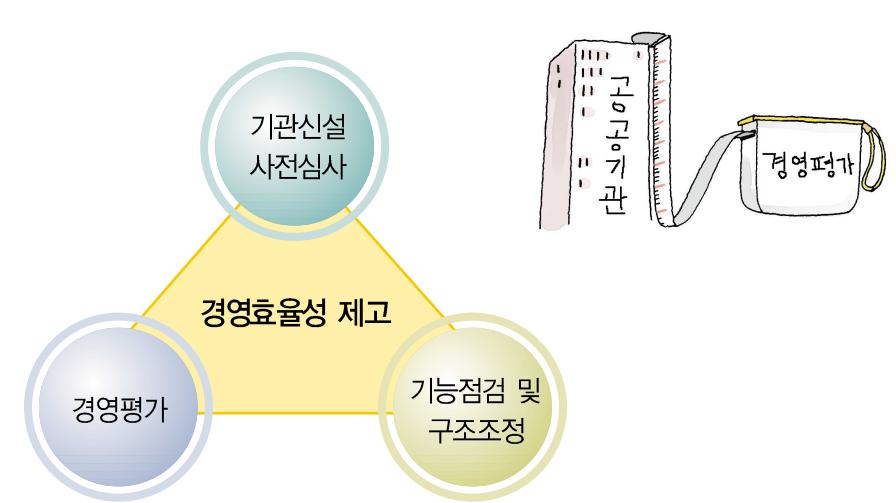
- 공기업 상임이사 임명권을 정부에서 기관장에게 이양하여 기관장이 직접 뽑은 사람과 신명 나게 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주무부처의 포괄적 지도·감독권을 법령상 명시적인 감독사항으로 제한하여 기관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정부 규제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토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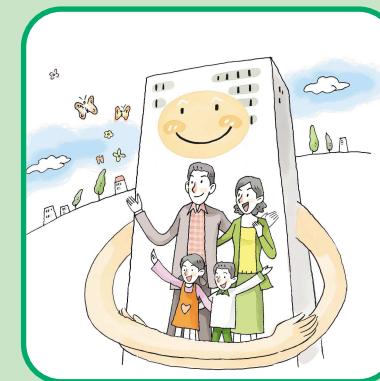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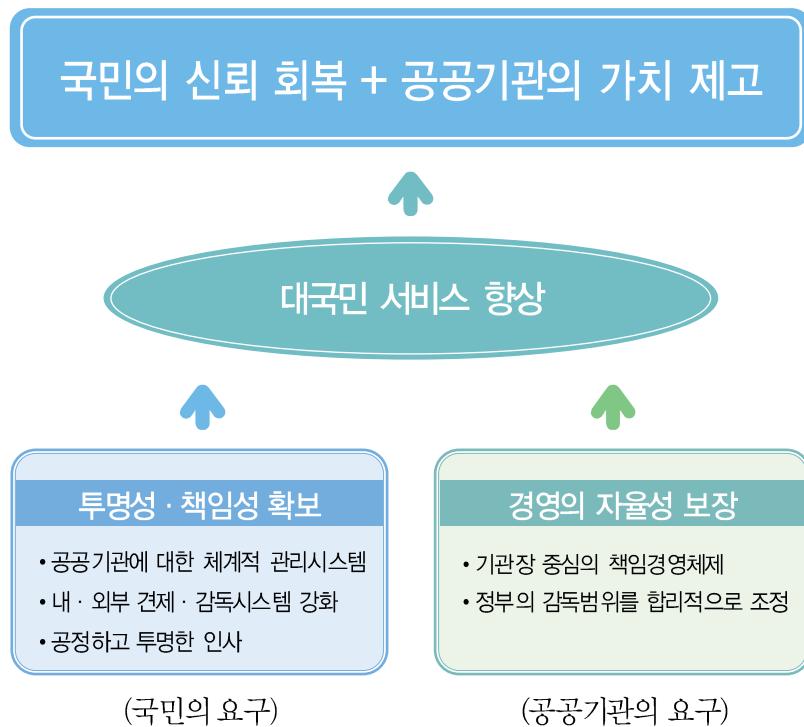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위주의 관리, 기능점검에 따른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기관 신설 시 사전 심사제를 통해 공공부문의 비대화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 공공기관의 기능/인력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방만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영실적평가를 핵심성과 위주로 개편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강화하여 자율/책임경영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공공기관이 달라집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